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곤한 내 영혼(464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46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27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관희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이사야 58:10-11	인 도 자
설 교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7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영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월 28일 제26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있고 그 원리와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연과 사회가 아무런 질서도 원리도 없이 움직인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수천년이 흘렀어도 성경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존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적과 기적은 특별한 상황이나 형편에 제한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곧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졌기에 세상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지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세워간다면 굳이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이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질서와 원리를 회복하고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돕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웃의 형편을 돌보아 그들을 돕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움을 베푼 사람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원리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겨우 사람이 주는 도움을 받는 다면 도움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습니다. **사58:10-11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려운 사람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계산적이어서 이런 마음을 자꾸만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끊어오르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 사랑과 긍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각지 않던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서 전화나 연락을 취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상심하였거나, 위로가 필요하였는데 마침 연락한 것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이 이끄시는대로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외로움에 슬퍼하는 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긍휼과 연민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연민이 솟아오르고 누군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맘에 연민을 불러일으키실 정도로 한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불어 넣으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들을 존귀히 여기고 저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복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 댄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물이 끊어지지니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다음 주 예배 후에 1월 재정보고 및 선교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코마제일감리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1,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4. 설교CD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결석자나 우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할 동역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	
감사헌금:	$200.00	
주일헌금:	$20.00	
특별헌금:	$1,010.00	**합 계: $1,330.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